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6℃/4℃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음력 1월 20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750호



“에큐메니칼 운동, 그 어느 곳보다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예장통합 제101회기 에큐메니칼 정책 세미나 장신대 한국일 교수 강연

“한국교회는 짧은 교회역사에 비해 세 계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으나, 선교의 실상은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 선교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지역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들 통해 선교현장에서 협력선교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어느 곳 보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신학이며 원리이다.”

예장통합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위원장 최기학 목사, 이하 위원회)가 17일 낮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1회기 에큐메니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주제 강사로는 한국일 교수(장신대 선교학)가 나서서 “에큐메니칼 협력선교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현 한국교회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일 교수는 먼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세계교회들이 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으로 출발해 선교, 봉사, 신학을 중심으로 공동의 증언과 사회적 증언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신앙운동”이라 설명하고, “에큐메니칼 연합과 협력은 개 교회나 교파의 범위를 넘어서야만 하나님 나라를 광범위하게 선포하고 실현하게 된다”면서 “이것을 위해 온 세계에 온 교회가 온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선교와 봉사, 신학의 세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 할 때 세계교회들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증언’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봉사는 복음을 ‘사회적 증언’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되어져야 하며 ▶세상에 세워진 다양한 교회의 역사와 예전, 전통의 만남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면서 “현재의 기구중심의 활동으로부터 모든 지역교회의 호응을 얻고 에큐메니칼 정신을 지역교회 목회와 선교에 구현할 수 있는 교회에 기반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한국교회의 해외·국내 선교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 선교운동에서 시작됐다. 선교현장에서 직면한 경쟁적 선교와 선교사의 교파적 배경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선교사 대표들이 대화를 개최하고 서로 협력해 세계선교의 과제를 함께 수행할 것을 다짐한 것이 그것이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 선교 상황은 100년 전인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를 개최한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거듭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한 교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계교회들이 세계적·지역적 차원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히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국내적으로 교회의 침체와 저성장의 문제를 비롯해 추락한 사회적 공신력 강화와 세계교회와 책임적 연대, 건전한 선교신학과 정책수립, 다원주의, 타종교와의 관계, 동성애, 이주노동자, 평화통일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하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신학뿐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교와 관련, 한 교수는 “21세기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 빈세계 교회 상황이기에, 현지교회와의 협력선교가 필수적이며, 협력선교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선교사 개념은 실제적으로 선교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아직 국내와 해외선교가 구시대적, 제국주의적 형태에 머물고 있으나, 희망적인 것은 국내와 해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시대에 적합한 협력선교를 추구하며 노력하는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라 덧붙였다.

국내 선교에 대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더 이상 교회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약화된 기구중심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소수의 신학자나 실천 전문가들에 머물러서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같은 지역교회가 중심인 환경에서 지역교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새로운 목회·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정책을 세우고, 공적 책임과 평신도 신학을 지향하며, 지역교회도 참여하는 신학정립과 실천력을 위한 리더십 함양 등이 한국교회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실현하기

한국일 교수는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 특징을 가진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이 주는 유익함, 그것을 한국교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신학이 사회적 차원을 담보하면서도 친교화적이어야 한다 ▶좋은 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구조가 있어야 한다. 세계교회와 연대하는 총회로부터 지역교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직 에큐메니칼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먼저 세계와 연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선교적 목회를 감행하는 선구자적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한 교수는 ▶개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역교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이 필요하다 ▶사회참여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지역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지교회의 선교적 역량을 집결해 실천하는 총회와 연합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교회→총회→노회와 지역교회 순으로 에큐메니칼 구조가 연결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역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활동을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연구하고 설명하며 이론으로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한 교수는 “지역교회 사역을 에큐메니칼 신학으로 정립하는 모델을 지역교회→신학화→총회 정책과 세계교회와 연대하는 이론과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총회 안에 각 영역에서 전문자로 활동하는 평신도들과 목회자, 신학자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에큐메니칼 신학이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차세대 에큐메니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과 다차원적 지원의 필요하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지교회의 긴밀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 운동이 필요하다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한국일 교수의 주제 강연 외에도 “인도네시아 협력선교 모델 소개”(이규대) “영동포노회의 삼자간 협력선교 모델”(고일호) “평양노회의 협력선교 모델”(최창덕) 등의 사례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 전 여는 예배는 손은탁 목사(서기)가 인도했으며, 최기학 목사(총회 부총회장)가 설교했다. 행사 후에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홍은혜 기자



“고맙다…사랑한다”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열린 박종호 장로의 감사예배 “초심” 무대에서 그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박종호 장로 페이스북

“한국교회 비윤리성 문제, ‘주기도문’이 대안 될 것”

헤브리터치 미니스트리 심포지엄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 주제로

헤브리터치 미니스트리(HTM)가 18일 창립일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 저명한 신학자들을 초청,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명예교수)는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중심이며 핵심”이라 말하고, “주기도문의 각 구절에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정신에서 살아 나갈 때, 예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은밀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를 공동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예수는 신자들이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의 기도하는 법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눅11:1). ‘주기도문’이라는 주

의 기도는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가 드리는 기도로, 김 박사는 “누가가 기록한 승화된 주기도의 내용을 따는 7가지 청원기도로 분명하게 기록했다”며 “처음 3가지와 끝 첨가된 1가지 청원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고, 중간에 이어지는 4가지 청원은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했다.

이어 김 박사는 “주기도를 구성하는 두 부분의 상호관계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사이의 관계에 비교 된다”고 말하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으뜸 계명을 펼쳐 놓은 것 같이, 주기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라 했다. 더불어 그는 주기도가 “개인적 기도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기도”라 말하고,

“주기도는 가족이나 사회계층, 남녀노소와 모든 문화와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라며 “주기도는 모든 경계를 뛰어 넘어 우

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든다”고 했다.

최갑종 박사(백석대 총장, 신약학)는 “종교개혁500주년,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교파 난립, 세습, 성추문, 교권싸움, 이단 득세, 세속화 등으로 인해 신임도가 계속 추락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비윤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양면성, 곧 주기도문이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양면성인 ‘이미’와 ‘아직’의 특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것을 제안했다.

특별히 최 박사는 “투터가 이신칭의 구원론을 확립하기 위해 성경을 ‘율법’(명령)과 ‘복음’(약속)으로 나누고,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제자도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은 물론, 바울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까지 복음이 아닌 율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고, “과연 칭의나 복음으로부터 윤리를 배제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물었다.

최 박사는 “주기도문은 결코 신앙(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하

고, 더불어 “신자의 그 어떤 믿음과 삶의 영역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 선포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회복시키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영한 최갑종 박사의 강연 외에도 소기철 박사(장신대)와 손기철 박사(HTM 대표)가 강연을 전하기도 했다.

손기철 박사는 “HTM이 2008년 2월 18일 창립 후 지난 9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겨왔다”고 밝히고, “매년 창립주간에 즈음해 국내외 저명 신학자와 목회자 성도들을 초청해 ‘성령과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하에 신학과 목회와 신앙이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자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조은식 기자

간암 수술 후 다시 무대에…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성악가로 찬양사역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던 박종호 장로, 그가 간암으로 쓰러져 투병해 오다 수술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 최근 여의도침례교회(본당)에서는 박종호 장로의 감사예배 “초심” 무대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종호 장로 외에도 고형원과 부흥한국, 메리제인, 송정미, 전용대, 좋은씨앗, 최덕신, 최인혁 등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예배에 대해 주회

측은 “박종호 장로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기도해 주고 물질로 후원해 준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대에 섰다. 최근 여의도침례교회(본당)에서는 박종호 장로의 감사예배 “초심” 무대가 진행됐다.

박종호 장로는 “어느새 30년이라는 꿈 같은 시작이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그저 노래했는데, 그 노래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셔서 배부신 은혜로 만나게 해준 성도님들…저의 모자

름에도 이모양 저모양으로 사랑해 준 기도 앞에 다시금 다짐해 본다”고 했다.

이어 박 장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더욱 열심히 회복노력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면서 “기도해 준 은혜 잊지 않고, 그곳이 어디든 제가 없어서 안 될 일은 없겠지만, 서 있는 그곳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사랑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박종호 장로는 선화예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원을 나왔다. 또 1980년 전국 학생 음악 경연 대회 성악부 대상, 1980년 MBC 우리들의 노래 학생음악 콩쿠르 특상 등을 수상했으며, 박종호 미니스트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사람받아온 가운데 한동대 객원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내려 기자

“킬러로봇 개발,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필자는 고교시절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로봇’ 시리즈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로봇 공학의 3원칙’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원칙은 기사 중간에 소개한다.) 그런데…단지 상상력의 소치일 것이라 생각했던 이러한 로봇 윤리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바로 우리 세대에서.

박상은 원장(생명원,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은 최근 열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정기 이사회와 총회 특강을 맡아 전하면서, 인공지능 로봇과 공생하는 인류의 소름(?)끼치는 미래를 그려냈다. 그는 먼저 맞춤형, 인간복제, 그리고 전례 없이 쉽고 정확하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등 인류 앞의 도전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특히 박 원장은 ‘아이, 로봇’ ‘트랜센던스’ ‘her(그녀)’ 등의 SF영화를 소개하고, 이것이 SF영화만이 아닌, 잘 알려진 ‘알파고’와 킬러로봇 등으로 구현되는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가장 첨예한 논쟁은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라 지적하고,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살인할 수 있는 로봇인 ‘킬러 로봇’(자동살인기계)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또 박 원장은 특별히 로봇 의사 ‘IBM 왓슨’을 소개했다. 그는 “IBM의 서비스형 SW 클라우드(SaaS)로 제공하는 왓슨 포 온콜로지는 방대한 분량의 정형·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암환자에게 개별화된 치료 옵션과 관련한 정보를 수초 만에 분석을 끝마친다. 이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 했다.

특히 왓슨은 분석 정확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길병원은 현재까지 왓슨이 제시한 치료법이 의료진이 예상한 결과와 거의 유사했다고 밝혔다. 이언 길병원 신

경의과 교수는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왓슨이 내놓은 결과 치는 인간(의사)의 판단과 대부분 일치했다”고 밝히고, “환자들 역시 의사와 상담과 더불어 왓슨에게도 치료법을 제안 받으니 더 신뢰가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박 원장에게 귀뜸 했다고 한다.

박 원장이 여러 가지 예로 들면서 설명한 ‘로봇’ 시대는 이제 현실이다. 때문에 그는 이제 ‘로봇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로봇 제조자와 사용자가 가져야 할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로봇 윤리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내용이 그것이다.

* 로봇은 제작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와 작동 특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 로봇의 기능과 그것을 토대로 로봇에 위임된 권한의 종류와 양상을 포함하는 로봇의 작동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고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 로봇은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도록 뿐 아니라 그것의 작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안전이나 건강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위험이 없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 로봇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 로봇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개별자 차원이나 유적(類)차원에서 인간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단 인간 정체성은 본질주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보정 가능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처음 필자가 이야기 했던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1940)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위협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들이 범죄1과 상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보호가 범죄1과 범죄2와 상충하지 않을 때만 유효하다 등 3가지를 설명한다.

그런데 아시모프가 제안하는 수정된 로봇 윤리법칙(1985)에는 한 가지가 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회총회에서 박상은 원장이 ‘인공지능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제6공

포함되고 수정이 일어난다.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협에 처한 인류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삽입되는데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협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 앞에 ”이것이 범죄0을 위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추가 된다. 그 뒤의 내용들은 동일하다.

2007년에는 로봇윤리현장 초안(ICRA)이 마련됐다.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정해진 권리, 정보윤리 및 공학윤리 등의 공동원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善)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의사 결정해야 한다 ▶로봇은 사용자인 인간의 친구·도우미·동반자로서 인간의 명령에 항상 순종해야 한다 ▶로봇 제조자는 로봇윤리현장을 준수해야 할 제1 책임자로서 인류와 공생하기에 적합하고, 사회적 공익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로봇을 제조하여야 한다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규에 따라 사용하되, 로봇 남용을 통한 중독 등에 주의해야 한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박 원장은 더 미래를 상상했다. 로보-사피엔스(Robo-Sapiens)가 바로 그것인데, 인간의 유전자 삽입된 로봇, 인간의 피부와 눈, 입술을 가진 로봇, 인간지능을 가진 자율로봇(Autonomous Robot), 인간감정을 가진 휴먼로봇(Human Robot) 등이 그것이다. 그는 로봇이 섹스파트너일 뿐 아니

라 가족구성원이 되고,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재생산하는 것도 상상했다. SF영화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박 원장은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대비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자율성을 지닌 존재(Autonomy)로, 도덕적 존재(Morality)로 지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의 로봇 제작은 인간의 형상으로, 내재화(프로그램화)된 자율성을 기반으로, 준-도덕적 존재로 만들어 낸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그는 강연을 마무리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신학적 물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과 사용, 윤리 가이드라인 모두가 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한편 박상은 원장은 (현)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현)고려의대 및 한동대 겸임교수, (현)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이기도 하다. 그가 위원장이기도 한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간사),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 6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으며, 과학계 의학계 위원 7명, 윤리계 종교계 시민단체 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및 치료, 인공지능, 연구윤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은식 기자

문체부 조윤선 전 장관 대행 송수근 제1차관, 한교연 내방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제1차관이 지난 2월 17일 오후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해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환담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사퇴로 장관대행을 맡게 된 송 제1차관은 “최근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문체부가 연루되어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일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면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서영 대표회장은 “우리 사회가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있고 그 중심에 문체부가 연관돼 안 타까웠다”면서 “이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고 모든 일이 정도를 걷게 되면 국민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한교연은 어제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 중계동 백사마을에 연탄 2만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문체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교연이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대행은 한교연이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정부와 교회가 우리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제1차관(왼쪽)과 정서영 목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교연 제공

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대행은 문체부 문화미디어국장, 뉴욕문화원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콘텐츠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제1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전임 정관 공석으로 장관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송수근 장관대행 내방에 문체부에서 박찬석 중무2과장, 이승천 행정관, 한교연에서 사무총장 대행 최귀수 목사,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가 배석했으며, CTS기독교TV 사장 김관상 장로가 자리를 함께 했다.

박용국 기자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국장 장세규	교계편집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캠페인 참여방법!

-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 모바일 앱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3인1팀 후원을 해주세요!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전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아동연례발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3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교육 및 미술에 혜택을 줍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배고픔을 넘어 꿈을 가꾸고 한 아이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다음 세대 사역, 130년 전 선교지 ‘조선’과 비슷하다”

좋은교사운동의 ‘2017 학교복음사역 컨퍼런스’

18일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임종하)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학교복음사역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7 학교복음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베타선교회 도기민 전도사는 발표를 통해 먼저 “교회의 다음세대 사역이 위기”라는 말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에 대해 충격을 받거나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잠정적으로 한국은 미래의 미전도 종족, 그리고 이미 한국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도기민 전도사는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미전도 종족으로 봐야 하는 다음세대를 안에서 기독교 혹은 교회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 지적하고, “다음 세대 안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학교에 있는 기독교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커밍 아웃’이 되는 지경”이라 했다.

그러나 도 전도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이라 했다. 그는 “130여 년 전의 조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다음 세대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 안에는 서양 문물을 포함해 타 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면서 “조선은 ‘선교지’였다”고 했다.

그가 속한 ‘베타선교회’는 청소년 선교단체로, 서울 동북지역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그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에 대해 도 전도사는 “다음 세대를 선교 대상으로 바라 본 것”이라며 “청소년을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으로 보고, 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터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19세기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유교문화 외 타종교에 대해서 병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전도를 할 수 없었던 서양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 세우는 일이었겠지만, 먼저는 조선인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줬다.

도 전도사는 “베타의 비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가 머무르는 장소인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연대해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복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을 위해 사



18일 좋은교사운동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2017 학교복음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좋은혜 기자

역 한다”면서 “지역교회가 지역에 속한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베타의 사역”이라 했다.

이를 위해 베타는 교회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도록 도전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링크전문화’,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다치지 않는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청소년 목회연구’, 신학대 학부와 신대원에 베타 동아리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기독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자 지원’ 등의 일을 한다.

도 전도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선교사들의 수고가 이 땅에 수 많은 복음

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이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려는 교회들이 있다”고 했다. 덧붙여 “우리에게 더 나은 상황은 바로 기독교사가 있다는 것”이라 말하고, “쉽지 않고 버거운 일이지만, 동역하여 함께 간다면 더 힘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독교사는 학교의 선교사”라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도 전도사의 발표 외에도 “기억하고 상상하라 학교복음화!”(김만호) “교사가 살아야 학교가 산다”(이남선) “생명을 살리는 기쁨!”(박종식)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또 자기소개 및 관심 사역 나눔의 시간과 학교복음사역 관련 협력 사역들 소개의 시간이 있기도 했다.

좋은혜 기자

한신대 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15명 등 총 1,328명

한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최성일)가 2월 17일 오산캠퍼스 살롬채플에서 졸업생과 학부모, 최성일 총장직무대행,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권오륜 총회장 등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학부 76회, 대학원 61회 등이며, 학사 1,139명을 비롯해 석사 103명, 박사 14명 등 총 1,256명이 각각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김남석 교목실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축하영상메세지, 총장말씀, 대표 학위증서수여, 시상, 초청강연, 축가, 졸업생명예선언, 졸업생 감사인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정의로운 한신의 졸업생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졸업생들을 위해 강연을 펼쳤다.

최성일 총장직무대행은 졸업생들의 졸업과 학부모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신인으로서의 ‘탄남’ 그리고 ‘인연’을 강조 했다.

최 총장은 “여러분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동기, 선배, 교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평생을 따라다니는 인연을 만들었다”며 “그 인연을 바탕으로 더불어 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찬란히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특강을 통해, 중학교 교사 자리를 내놓고 미국유학을 떠났던 일, 대학교수의 위치에 오른 후 국회

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 등을 소개하며 “하고 싶은 일의 물밑에 따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처음 밝힌 2014년을 회고하는 한편 최근의 국정조사활동을 전하며 “여러분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

학위수여식 시상에는 김 연(신학)·정명재(철학) 씨 등 9명이 총장상을, 정은주(기독교교육학)·이하연(국어국문학) 씨 등 9명이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한 졸업생 41명이 각각 총회장상, 설립자상, 총동문회장상, 대학원장상, 대학장상을 받았다. 이외 졸업생 6명이 경기도지사상, 경기도 의회의장상, 오산시장상, 국회의원상(안민석), 오산시회의의장상, 국민은행장상 등 외부기관 포상을 받았다.

졸업생을 대표해 이용민 씨(일본학과)는 “졸업생명예선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으며, 야망과 포부로써 설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구현 속에서, 지금껏 한신 안에서 써 온 한신의 역사를 한신 밖에서 써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신학대학원사회학 신경영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신학석사 66명, 신학박사 1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위탁교육 수료자 5명, 사회학신경영대학원 문학석사 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조은식 기자



한신대 학위수여식의 모습.

한신대 제공

2016학년도 침례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열려

침례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형원)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최근 교단기념대강당에서 졸업생 및 교단 관계자, 가족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되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양병모 박사의 사회로 총회 재무부장 차성희 목사의 기도, 학생실천처장 노은석 박사의 성경봉독이 있는 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너희는 가라”(마 28:18-20)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관재 총회장은 “졸업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말씀은 33년전 내가 목동 캠퍼스에서 졸업할 당시 고민하고 기도할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당시 GO! YE!(너는 가라!)의 말씀을 회상하며 기념 뱃지를 졸업생에게 제공하겠다. 앞



침신대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침신대

으로 겸손하게 복음에 도전하며 여러분의 길을 가는 졸업생이 되길 기원한다”고 졸업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이형원 총장직무대행의 학위수여, 목회연구원 수료증 수여, 이명희 평생교육원장의 평생교육원 수료증 수여가 진행되었으며, 최우

수상을 수여하는 기독교교육학과 윤종만 학생 등 성적우수자와 총회장 등 교단 기관장상, 대전시장상 등 우수 졸업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형원 총장직무대행은 권면사를 통해 “3년,4년, 7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학문적 발

전을 이루고 영적깨달음과 인격적 성숙을 통해 한걸음 더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당부하기는 여러분의 박식함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기를 죽이거나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기 바라고, 여러분의 학구욕이 주위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에 무관심하게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희 전 총장의 축사와 총동창회 서광선 사무총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교가제창 및 유관재 총회장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학위수여식 이후 단상에서는 교수와 졸업생들이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며 그 동안의 사제지간의 정과 석별의 아쉬움을 함께 나누었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6학년도 침례신학대학교 학위수여는 학사 304명, 석사 177명, 박사와 정 10명 등 총 49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목회연구원 10명, 평생교육원 5명 등 총 15명이 수료했다.

조은식 기자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